한국 문학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구 모 룡**

On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Literary Community

Mo-Ryong Gu**

〈목 차〉

1. 공동체와 문학공동체
2. 문학공동체의 여러 양상
3. 문학공동체에 내재한 제 문제
4. 문학공동체 합리화를 위한 전망
5.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학공동체의 사명

1. 공동체와 문학공동체

콜린 벨과 하워드 뉴비는 공저인 『공동체 이론들』에서 공동체의 개념은 "자신의 용어를 써서 그것을 정의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 본질은 포착되지 않고 빠져나가 버리는 것같이 보이는 것"[1]이라 한 바 있다. 그만큼 정의가 다양하고 관념적이라는 것이다. 정의의 다양성은 그 범주와 내용이 유동적인 데 기인하다. 가령 집단과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나 군사와 학술을 매개로 형성된 경우도 공동체로 불리고 있다. 아울러 지역에 기초하여 마을, 소도시, 대도시 나아가서 민족국가 단위를 모두 공동체라고 명명한다. 공통된 요소를 공유하지 않은 것들이 제각기 공동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 정의의 혼란

* 이 글은 2001년 10월 18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 한국해양대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부교수

1) 콜린 벨/하워드 뉴비(김경일 역), 「공동체의 이론들」, 『공동체 이론』(신용하 편, 문학과지성사, 1985), p. 52.

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회적이고 지역적인 외연과 달리 그 내용에서 정서, 심성, 정신, 문화심리 등의 공유라는 내용적 자질을 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정의는 더욱 어려워진다. 즉 공동체를 규정하는 데 있어 지역적 변수(지리적인 영역), 사회학적 변수(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문화심리적 변수(공동의 유대) 등 세 가지 변수들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2] 이러한 변수에 따라 공동체를 공간적 단위인 장소(지역)로 정의하거나 사회조직체의 기본적 단위 혹은 상호작용의 연결관계로 보거나 문화심리적인 단위로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나타나게 된다.[3]

이처럼 공동체 규정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정의의 혼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공동체적 삶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체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마치 낭만주의의 삼박자[4]처럼 공동체-공동체 상실-공동체라는 변증법적 의식형태를 보인다. 즉 공동체 개념은 당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대립을 내포한다. 사회와의 대립이라는 공동체의 이러한 의미지향은 자주 과거에 대한 향수적 태도와 연결되는데, 전통사회를 유기적 공동체로 상상하면서 당대를 이의 상실로 인식한다. 이것은 또한 사회공동체와 미학적 구성체를 동일한 지평에 놓기도 하는데 유기적 사회와 유기적 미학의 결합이 그것이다. 유기적 미학자들은 근대의 문학을 유기적 사회의 공동체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등가물로 받아들인다.[5]

그런데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문학공동체는 유기적 공동체의 이데올로기적 등가물 혹은 상상된 관계로서의 근대문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문학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제임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동일한 매체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편 근대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정서적 요인이 문학의 공동체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는 상상된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문학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공동체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는 문학구성체를 다양한 사회적 구성물의 한 유형으로 보면서 그 형성과 양상을 다각도로 살피는 일과 연관된다. 따라서 이것은 문학공동체의 현실을 해부하고 그 미래를 전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 개념에 대한 재조정이 필수적이다. 즉 공동체를 상호 작용의 장으로 인식하게 한다.

2. 문학공동체의 여러 양상

2) 데니스 포플린(김경일 역), 「공동체의 개념」, 신용하 편, 앞의 책, p. 26.
3) 같은 글, pp. 27-43.
4) 에른스트 피셔에 의하면 낭만주의는 정(기원의 통일성)-반(소외, 고립, 파편화)-합(모순의 제거, 화해,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 낙원회복)이라는 변증법적 삼위일체로 구성된다. E. Fischer(A. Bostock trans.), *The Necessity of Art*(Penguin Books, 1978), p. 54.
5) 테리 이글턴(김명환 외역), 「영문학연구의 발흥」, 『문학이론입문』(창작과비평사, 1986), pp. 27-71. 구모룡, 「보존과 창조: 한국문예학의 전통」, 『한국문학과 열린 체계의 비평담론』(열음사, 1992), pp. 17-135.

dCollection

문학공동체는 여타 다른 사회 공동체와 달리 문학이라는 공통된 의사소통에 의해 매개된다. 이는 무엇보다 문인이라는 자격의 부여에 기초한다. 등단이라는 최초의 인정을 바탕으로 문인공동체가 형성되며 이는 다시 조직과 제도 그리고 이념에 의해 분화된다. 또한 해석 행위를 중심으로 소집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지역적 기반에 근거한 지역문학공동체도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의 문인들은 다소의 중첩된 소속의식과 활동영역을 지닌다. 즉 복수의 공동체 혹은 다중적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다.[6]

가. 심정적 문인공동체

심정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문인공동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이것은 등단이라는 인정제도와 의사소통 매체의 공유에 의하여 느슨하지만 통합되어 있다. 문학 생산이라는 공통의 목표는 문인들의 연대의식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문인들은 직접적인 대면 활동이 없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각종 문학 잡지와 출간된 시집과 소설 들은 문인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유대를 증진한다. 그런데 공동체의 개념을 지역적 연대나 사회·조직체 단위로 한정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문인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실질을 지니지 못한 것이 된다.

하지만 문인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우선 그 첫째가 문사적 전통[7]과 관련된다. 이는 내면화된 정서 구조(mentality)로 문인들 사이에 인정과 자격, 자부와 존중으로 나타나며 공동체적 연대를 가능하게 만든다. 둘째로 문인들이 유사한 성격을 지닌 문화적 능력[8]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문학을 생산하고 해독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셋째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문학예술의 불화 관계를 들 수 있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물질주의는 문학인들에게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소외의 위치 감각을 갖게 한다. 이러한 위치 감각이 공동적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소외에 대한 반감과 창조적 열정이 문인들을 정서적인 차원에서 엮어 공동체적 유대를 갖게 한다. 문인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넷째 요인은 위기의식이다. 앞서 말한 소외가 상상적 공동체를 통한 문학의 부정 변증법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 반면, 문학 매체의 생산력 한계에서 유발된 위기는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자매체, 책, 문학의 위기가 초래됨으로써 문인공동체는 위기의식의 공동체가 된다. 물론 여기서 이러한 위기의식의 과장된 생산방식에 대하여 논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학을 새로운 과학기술이 요구하는 생활양식과 다른 패턴의 문화

6) 레나토 로살도(권숙인 역), 『문화와 진리』(아카넷, 2001), pp. 280-290. 참고.
7) 이러한 문사적 전통은 사대부의 존재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오래된 것이다. A. F. 라이트(최효선 역), 『불교와 중국의 지성사』 (예문지, 1994) 참고.
8) 이는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과 일치한다. 그런데 문인들은 같은 성격의 문화자본을 지녔다 하나 자본의 차이에 기인하는 권력관계와 불균등한 재생산 구조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자본의 개념에 대한 것은 김연종,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문화자본」, 『문화연구이론』(정재철 편, 한나래, 1998). 참고.

dCollection

양식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문인들의 정서적 연대의 요인으로 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인공동체는 상상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에 지나지 못한다. 이로써 문인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장르와 조직 그리고 이념에 의한 분화와 인정과 해석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정적 차원의 문인공동체는 존재하며 비록 느슨하나 사회적인 연대를 지니고 있음도 사실이다.

나. 조직, 이념, 제도에 의한 공동체

조직체로서의 문인공동체는 우선 한국문인협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 우파 문인들을 결집하면서 50년대 이래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조직체로 존속되었다. 이 단체를 이끈 대표적 문인들은 일 공화국 이래 제도와 해석을 독점하면서 특정의 문학개념을 유포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였다. 이에 의한 문학 개념의 관념적 전유는 문학자본의 독점과 해석적 권력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상상된 관계인 문인공동체와 문인협회라는 조직이 분리되지 않고 자주 동일시된 것은 이 조직이 견지한 문학개념이 파생시킨 이데올로기적 효과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조직체는 관념적 문학 개념과 조직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결합하는 담론으로 한편으로 대다수 문인들을 아우르고 다른 한편으로 문학자본의 독점을 지속시켰다.

그런데 문인공동체는 장르와 스타일, 이념과 제도에 의해 분화된다. 우선 장르에 의한 분화는 장르의 생산과 소통 방식의 차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시인 공동체, 소설가 공동체, 비평가 공동체가 형성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장르에 의한 귀속력이 문학이라는 큰 범주에서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장르에 의한 공동체 형성은 협회 형식의 조직체로 나타난다. 한국시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평론가협회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들 조직체는 성원들에게 자격과 역할과 규범을 부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한다. 스타일에 의한 결집은 소집단에서 대집단에 이르는 다양성을 보일 수 있다. 가령 초현실주의나 아방가르드에 의한 소집단 형성을 들 수 있다. 즉 스타일에 있어서 혁신과 전통의 대립에 의한 상호 이질적 집단의 형성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주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거나(순수 생산/상업 생산) 그에 저항하는 하위 스타일 집단이 생성될 수도 있다.[9] 가령 추리문학이나 상업적인 대중문학, 최근의 팬터지 등을 매개로 한 소집단들과 주류적인 책 문화를 거부하는 사이버 공간의 문학집단 등이 있다. 하위문학 그룹의 경우 협회 등의 명시적인 조직체를 형성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구체적인 상호작용 없이 연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념에 의한 조직체 형성은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과 문학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와 민족문학작가회의 등이 이에 속한다.

---

9) 이러한 하위문화와 스타일에 대한 것은 D. 헵디지,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현실문화연구, 1998). 참고.

dCollection

다. 지역문학공동체

지역적 기반에 의한 문학공동체를 들 수 있다. 우선 전국조직의 지역 지회 또는 지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조직, 이념, 제도에 의한 공동체'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지역문학공동체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지역성은 단순하게 지역 연고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중심주의와 지역적 불균등성에 발생론적 기원을 두고 있다. 지역문학공동체는 가장 먼저 중심부의 문학자본과 상징독점에 반발하는 감정적 지방중심주의(지방주의)에서 시작되고,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모순의 하나인 지역적 불균등발전론에 대한 객관적인 자각으로 발전한다. 말할 것도 없이 문학적 가치평가가 유통구조의 탓으로 돌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심부 지역이 매체를 독점하는 불균등한 유통구조가 여타 지역의 문학적 창조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지역화된 문학공동체가 형성된다.

지역문학공동체는 지역적 불균등성을 벗어나기 위해 먼저 자발적인 매체 생산을 도모한다. 각 지역에서 출간된 여러 매체들은 대부분 중심부의 문학독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창간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간혹 중심부 매체들의 재생산 구조에 편입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최근에 이르러 지역잡지연합[10]을 통한 지역매체 연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가 특정 문학 이념에 근거하기보다 필진 교환을 통해 문학자본을 확충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지역매체의 연대가 또 다른 형태의 카르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문학공동체가 안고 있는 지역 모순은 단순한 지면 확보를 통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이러한 모순을 새로운 생성의 가능성으로 전화하려는 노력에 의해 지역문학공동체는 발전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성을 새로운 문학생산의 터전으로 삼을 때 자본에 휘둘리는 중심부 문학과 다른 차원에서 창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판적 지역주의는 지역문학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비판적 지역주의는 지역성을 구심력과 원심력이 길항하는 장으로 파악하면서 지역성의 구체성에서 세계에 이르는 전체성을 획득하게 한다. 새로운 전체성 개념[11]이나 새로운 리얼리즘이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역문학공동체에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달리 민족지(ethnography)로서의 지역문학의 가능성이라 해도 될 법하다.

라. 해석 공동체

앞서 지역문학공동체의 바람직한 형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사되었지만 문학공동체론에서 해석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의 존재는 매우 의미 깊다. 해석공동체는

---

10) 제주의 『다층』, 부산의 『시와 사상』, 광주의 『시와 사람』, 대구의 『시와 반시』, 마산의 『시와 생명』 등이 참여하는 연합을 말한다.

11) 이를 생태학적 전체성이라 해도 될 듯하다. 구모룡, 「세계화와 문학의 균열」, 『황해문화』 2000년 봄호.

dCollection

간단하게 말해 문학해석의 전략을 공유하는 문학집단[12]을 의미한다. 이것이 특정한 해석 지평을 공유하는 비평가 집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에꼴화된 매체를 중심으로 모인 비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적인 구속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많은 시인과 작가들 나아가서는 미학자나 문예학자들도 특정 해석공동체에 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해석공동체는 특정한 문학적 아비튀스[13]를 지닌 일련의 사람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문학과지성사, 창작과비평사, 민음사, 문학동네 등에 소속된 편집진과 해당 출판사에서 지속적으로 책을 출간하거나 출간된 책들을 중요한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미학자와 문예학자와 저널리스트들은 동일한 해석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다.

해석공동체는 서로 구별되는 문학개념에 의해 형성된다. 문학을 정의 내리고 그에 대한 미적 준거를 세우는 데 있어 발생하는 차이들은 서로 다른 해석공동체를 생성하게 한다. 문학을 상상적인 것이라 하거나 언어를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야기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가변적인 문학성의 범주에 나름의 경계를 만들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는 매체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정의 내리는 데서 명료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공동체 성원간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해석공동체의 성원들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 해석의 습관에 의해 공통된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범주와 좋은 작품에 대한 기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해석공동체가 견지하는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모든 이데올로기가 대립의 소산이듯 해석공동체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해석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정의 내리기의 차이에서 비롯하고 정당성의 체계라는 점에서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해석공동체들은 자신들의 문학이 진정한 가치를 지님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규칙을 설득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에 위계화, 통제, 배제, 제명 등의 권력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14]

해석공동체는 특정의 문학 이데올로기를 지닌 문화자본이자 상징권력이다. 이것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문화자본을 재생산하며 상징권력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다른 해석공동체 간의 대립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해석독점과 상징폭력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것이다.

---

12) S. Fish,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Havard Univ. Press, 1980). Ch. 6. 여기서는 민병욱 · 황국명, 『『문학과지성』 비판』(지평, 1987), pp. 19-20. 참고.

13) 현택수, 「문학예술의 사회적 생산」, 『문화와 권력』(나남, 1998), p. 40. 부르디외의 아비튀스는 문학의 장 속에 위치한 행위자의 서로 다른 인식, 판단, 행위를 구조화하는 구조라는 개념을 지닌다.

14) 부르디외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해석공동체과 연관하여 설득력이 있다. "사실상, 문학 혹은 예술의 장 안에서 진행되는 투쟁의 주된 게임 중 하나는 장의 한계, 즉 투쟁에의 정당한 참여의 한계에 대한 정의이다. 이러저러한 유파나 그룹에 대해 '그것은 시가 아니다'거나 혹은 '문학'이 아님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요, 게임에서 배제시키고, 제명하는 것이다. 이 상징적 배제는 합법적 실천의 정의를 강요하기 위한,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특수 자본의 보유자들의 특수한 이익에 일치하는 예술 혹은 장르의 역사적 정의를 영원하고 보편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이면일 뿐이다." 현택수, 앞의 책, p. 31에서 재인용.

dCollection

3. 문학공동체에 내재한 제 문제

현대의 사회구성체가 그렇듯 문학공동체에도 많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다. 문학이라는 공통된 관심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과 소집단 그리고 외적 요인들에 의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공동체의 내부는 조화와 화해의 장이기보다 갈등과 경쟁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쟁과 갈등이 파괴적인 데 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배후엔 협동적인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다.[15]그런데 이러한 협동의 과정은 암묵적인 약속과 같은 것이어서 때로 불안하고 위태로운 과정을 겪기도 한다. 오늘날 문학공동체에서도 공동적 유대가 깨어질 요인들은 점증하고 있다. 이를 문인공동체의 기저가 되는 인정제도로부터, 매체운영, 해석독점, 문화자본과 상징권력의 문제에 걸쳐 따져보고자 한다.

가. 인정제도의 혼란

문인공동체의 가장 최초의 요건은 인정에 있다. 소위 등단제도로 불리는 이것은 문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으로 존속되어 왔다. 이는 문인임과 문인 아님을 명백하게 분할함으로써 문인의 권위를 합법화한다. 달리 말해서 이 제도는 기존의 문인들에게 권위의 독점을 보장해주면서 입회를 요구하는 예비 문인들을 구속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인정하는 자와 인정받는 자 사이에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관계를 만든다. 인정 절차의 특수성에서 이들을 도제적 관계가 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인정제도가 사적 관계, 친밀성의 원칙에 의해 훼손될 소지는 충분하다. 반대로 인정만 되면 무자격자도 문인이 될 수 있다는 모순도 발생한다. 자격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타락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인정제도를 이용하여 문학적 가치들을 하락시키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다. 문사적 전통에 다소의 유인이 있겠지만 시인이나 작가가 되려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출판자본을 확대하는 방편으로 삼거나 조직과 그 하부를 확장하려는 불순한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일부 협회 형식의 단체의 경우 선거 등에 인정제도를 자기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인정제도의 모순은 문학적 가치의 무차별화를 조장하고 서열적 위계를 피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공동체 내부에서 인정투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무차별화된 자격에 의한 혼란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문학적 가치를 드러내고 나아가 비평가와 소비자에 대한 자신의 공간감각[16]을 확인하려는 의지와 욕망이 작동되는 것이다. 부르디외가 말하듯 사회의 모든 장에는 입회권의 빗장을 부수려고 애쓰는 신참자와 독점을 옹호하고 경쟁을 배제하려는 지배자 사이의 투쟁이 있게 마련이다.[17]인정제도의 모순은 이러한 투

15) 데니스 보플린, 앞의 글, p. 39.
16) K. M. 보그달(문학이론연구회 역), 『새로운 문학이론의 흐름』(문학과지성사, 1994), p. 183.

dCollection

쟁을 더욱 가열하게 한다. 근본적으로 인정의 욕망과 지배의 욕망은 같다.

나. 무원칙적 매체 운영

문학매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명멸하는 현상이 있다. 어떠한 매체든 일차적으로 그 지속성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문학매체의 짧은 수명이 문제다. 매체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출판자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못지 않은 것이 각각의 매체는 그 나름의 이념을 지닌 해석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석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매체가 운용되고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앞서 말한 바 인정제도의 모순과 연관된다. 잡지를 출간하여 무원칙적으로 문인을 양산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 이를 운용하는 이들은 한편으로 양산된 문인을 잡지의 재생산 구조로 만들면서 자신들의 문학적 권위와 상징 권력을 생성하고자 한다. 여러 지역의 문인-교수들이 연대하여 잡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문단 내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문단권력을 유지하려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문학적 권위는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는 후차적이며 무엇보다 개인의 문학적 업적이 앞서는 것이다.

문학공동체 내에도 그래샴의 법칙은 작동하고 있다. 인정제도를 악용하여 비합리적으로 문인을 양산하는 매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매체를 통해 인정된 문인들이 문학공동체를 가치의 질서체계가 아니라 사적 관계의 체계로 만들려는 경향들을 보이는 데 이르러 재능있는 신인들의 문학적 성취의 둔화가 우려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역문학공동체에서 두드러진다. 문인의 자격을 인식하면서 지자체 등과 연계된 관변측 단체에 소속되어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문학활동과 혼동하는 이들도 많다.[18] 모두 무차별화된 매체의 잘못된 운용의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제도의 모순을 재생산하는 매체들을 규제할 방도는 없다. 오로지 문학적 장 내부의 상호작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바람직한 해석과 정당한 평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해석 독점

어떻게 보면 해석 독점은 피할 수 없는 일에 속한다. 해석공동체가 특정의 개념과 정의를 재생산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석공동체가 특정의 정의를 강제하거나 해석의 상대주의를 거부하게 될 때 문제가 유발된다. 섹트화는 해석공동체가 해석에 대한 독점적 권위를 유지하려 할 때 발생한다. 어원에 따를 때 라틴어 섹트(sect)는 당파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니며 스스로 원하여 사회의 주요부분과 절연된 사람들로써 이루어진다.[19]

---

17) P. 부르디외(문경자 역), 『혼란을 일으키는 과학』(솔, 1994), p. 128.

18) 가령 지역에서 아무런 문학적 업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관변측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거나 밀린 회비를 지불하면서 꼬박꼬박 문인단체장 선거에 대거 참석하는 현상을 목격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19) L. A. 코저(이광주 역), 『살롱 카페 아카데미』(지평문화사, 1993), p. 168.

dCollection

섹트화된 해석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당파적 배타성에 있다. 주로 이러한 배타성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가장 자격 있는 엘리트라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훌륭한 해석집단이라는 생각과 함께 타자들이 알 길이 없는 비의에 가까운 지식들을 지니고 있다는 자만에 사로잡힌다. 따라서 여타의 해석집단과의 개방적 토론을 불필요한 낭비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섹트화된 해석공동체의 해석독점이 유발하는 문제는 반대화주의만 아니다. 자신들의 해석을 절대화한 나머지 특정의 시인과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부동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여 자리매긴 시인과 작가에 대한 최초의 평가를 거듭 재생산하거나 확대재생산한다. 자연스럽게 잘못된 신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 형성을 통하여 섹트화된 해석공동체는 해석독점을 지속하면서 가치의 위계를 공고화한다. 간혹 신화파괴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나 투철한 당파성에 입각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위안을 찾는다. 이처럼 섹트화된 해석공동체의 해석독점은 타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엘리티즘, 독단주의와 특정 시인-작가 작품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신화주의라는 그릇된 문제를 만들어낸다.

라. 문화자본과 상징권력

해석공동체의 해석독점의 배경에 자본과 권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루 알려져 있다. 해석공동체의 문화자본은 근본적으로 출판자본의 뒷받침에 의해 성장한다. 아울러 문학생산자, 출판자, 비평가, 문예학자, 저널리스트 들이 한데 어울려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학작품이 밀폐된 공간에서 씌어지고 나중에 출판자와 수용자를 찾는다는 전통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시인과 작가들은 이미 글쓰기 과정 중에 자신의 원고 평가인, 출판자, 비평가, 소비자들을 고려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이들이 자신의 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러한 위치 감각은 특정 해석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시초로 작용한다. 대체로 자본을 제공하는 출판자와 해석을 제공하는 비평가는 상호합의의 관계에서 시인과 작가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성공을 거둔 시인 작가들을 자신의 동아리 안에 포함시키고 이들이 가져다 줄 이익과 이익의 이익을 확인한다. 또한 특정 해석공동체의 문학적 아비튀스를 공유하는 문예학자들은 직접적인 일원이 아니면서 해석공동체의 문화자본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과 달리 동질적인 아비튀스를 견지한 저널리스트들은 특정 해석공동체의 해석을 공론화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만일 어떤 해석공동체가 여기서 언급한 대로 충분한 자본과 필요한 구성원들을 모두 갖춘다면 거대한 독점적 문화자본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

독점적 해석공동체가 자본을 확대재생산하는 방편으로 삼는 것 가운데 문학상 제도가 있다. 문학상은 시인과 작가의 명성을 해당상과 그것을 주관하는 해석공동체에 재투사하여 자산의 확대재생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상 제도가 타락하는 것은 해당 상을 받는 시인과 작가의 문학적 성취에 대한 보상을 넘어 출판자본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활

dCollection

용하는 데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상업적 목표는 철저하게 은폐된다. 하지만 이것이 해당 해석공동체의 상징독점을 강화하고 문화자본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기여함을 알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자본의 자리와 권력의 자리는 상동관계를 가진다.[20]독점적 해석공동체는 해석의 독점을 통하여 문화권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권력은 특정 시인과 작가에게 상징권력을 부여하는 한편 자신들이 배제하고자하는 시인과 작가들에 대한 상징폭력을 행사한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해석공동체는 담론의 권력을 지닌다. 따라서 권력은 모두 나쁜 것이라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적 해석공동체의 문화권력이 그릇되게 작동하는 방식이다. 선택과 배제는 해석행위에서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때 왜곡이 일어난다. 섹트화된 해석공동체의 담론이 잘못된 권력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섹트주의는 해석행위에 필요한 토론을 말살하고 이를 신념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신념이 상징폭력과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4. 문학공동체 합리화를 위한 전망

공동체 논의에는 항상 당위가 전제된다. 즉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미래지향적 전망이 뒤따른다. 하지만 공동체를 무결한 정태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공동체는 여러 이질적인 관계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가 위기를 맞는 것은 공동체의 장이 합리적인 규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때이다. 앞서 우리의 문학공동체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들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음을 살폈다. 바람직한 공동체를 위한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다.

가. 인정제도의 쇄신

등단이라는 인정 제도는 공적 수준에서 문인임을 알리는 표지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적 관계나 친밀성의 원칙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문학적 수준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수준의 하락을 막기 위해 각 매체가 신인 등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 정도로 기회를 제약할 때, 문학적 능력을 갖춘 이들이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제대로 된 해석공동체의 매체들이 신인 등단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크게 제한하고 있는 반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매체들의 경우 기회를 방만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춘문예, 신인상, 잡지 추천 등의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령 수차에 걸친 투고와 이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를 거듭하는 방안을 통해 심사과정을 보다

20) 현택수, 앞의 글, p. 37.

dCollection

철저하게 하고 수준을 갖춘 문인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매체의 개방적 운영

동아리 의식이 강한 해석공동체의 경우 매체를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자기 식구들의 작품만 싣는 가운데 가치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섹트 의식을 강화한다. 말할 것도 없이 작품 선택에 있어 에꼴을 따르는 것은 탓할 바 못된다. 하지만 수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은 잘못이다. 사람들은 특권에 익숙해지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이거나 자연스럽고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어 그것이 곧 가치의 질서인 양 생각하기 쉽다. 폐쇄적인 해석공동체의 경우 특정 시인과 작가에 대한 가치판단과 위계를 재생산함으로써 이것이 부동의 질서인 것처럼 그릇되게 설득한다. 그러나 보다 큰 다양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바꾸어 가는 것은 단기적으로 괴로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21]매체의 개방적 운영은 해석 공동체 바깥의 다양한 가능성들에 늘 관심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내부의 문제들(특히 수준의 하락)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해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럴 때 섹트화나 신화화의 해독(害毒)에 저항하는 면역체계를 스스로 갖출 수 있다.

다. 토론의 활성화

해석공동체 바깥의 비판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갖고 이를 함께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논쟁이나 토론이 제대로 발전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은 비판을 묵살하거나 토론과정에서 어색한 침묵으로 방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한다. 자의식, 다양성, 토론 등의 개념들은 문학의 장을 활성화하는 변증법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다. 특히 섹트화된 해석공동체의 경우 내부의 유일무이한 일원론적 담론만 허용하고 서로 비적대적 긴장관계를 조성하거나 창조적 만남을 일궈낼 담론들조차 배제한다.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문학권력이 존재할 수 없다는 진실에 귀기울이면서 내·외부의 변증법을 확대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문제들이 토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사안에 있어 처음부터 토론이 불가능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의 문제조차도 해석공동체 안에서 다루는 것이 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립과 갈등의 대상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으로 자기 순결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또 다른 형태의 물신화에 다를 바 없다. 토론이야말로 여러 가지 모순과 왜곡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고 문학적 공공영역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22]

라. 상징적 신화의 해체

---

21) 레나토 로살도(권숙인 역), 『문화와 진리』(아카넷, 2001), p. 13.
22) 테리 이글턴(윤희기 역), 『비평과 이데올로기』(열린책들, 1987), 참고.

dCollection

신화화된 상징권력들은 해체되어야 한다. 문학공동체의 합리화에 있어 상징의 신화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상징자본을 재생산하는 왜곡된 체계를 해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화화된 상징은 허다하다. 우선 처음 제도를 통해 문학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매체와 교육을 관장함으로써 특정의 문학개념과 이데올로기를 유포함으로써 형성된 신화가 있다. 가령 분리주의 미학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왜곡되게 주류화된 미학 이데올로기는 비판되어야 한다. 문학공동체 내에서 진정한 주류는 다양한 미학 이데올로기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화해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학자본과 문학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해석공동체들이 특정의 시인과 작가 그리고 비평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부여하고 있는 상징체계다. 문학상 등은 상징의 신화들이 재생산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신화화된 상징들의 허구성은 새로운 해독(解讀)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23] 비판적 읽기를 통하여 해석의 관습이나 가치평가의 일관성에 내재한 허위를 토론의 대상으로 할 때 문학공동체의 새로운 전망은 열릴 것이다.

5.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학공동체의 사명

문학의 자리는 분명하고 풍문과 달리 쉽게 위기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문학은 이러한 위기의 사회 위험 사회와 같이 가지 않으며 가서도 안 된다. 문학이 자본과 기술에 예속될 때, 이미 문학의 사명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은 우리의 오랜 문화적 패턴으로 위치하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터와 자리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될 매체이다.[24] 현대문학의 가장 주된 테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일 것이다. 문학을 통하여 삶의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서 공동체 전체에 이르는 과제를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전체성을 추구하는 문학 개념의 대두도 가능할 것이다. 문학공동체의 합리화는 이러한 점에서 시급하다.

공동체 논의가 사회학적이라면 문학공동체 논의도 문학사회학에 속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 문학공동체에 내재한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사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학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에 귀속된다. 상징자본과 상징권력을 확대하려는 경쟁체제가 문학공동체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학이 자본주의 질서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문학공동체 논의가 자본주의 사회, 특히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학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비약될 소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23) 권성우 등이 벌이고 있는 문학권력 비판도 여기서 말한, 새로운 상징 해독으로 이어질 때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권성우, 『비평과 권력』(소명, 2000). 참고.

24) 지속가능한 사회의 개념은 L. W. 밀브래스(이태건 외역), 『지속가능한 사회』(인간사랑, 2001). 참고.

dCollection

이에 대한 것은 많은 사색을 요구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문학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힘을 보태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소통의 한 형식으로 간주되는 문학의 축소된 개념을 삶 전체의 문제를 풀어가는 확장된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25] 그렇지만 아쉽게도 현금의 문학공동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학은 전체적인 삶의 재구성이라는 과제에 충실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구성체의 타락한 자본과 오염된 권력과 구분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바람직한 문학공동체와 올바른 사회공동체의 상동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적 평등이 사회적 원칙이 되고 공동체적 민주제도가 뿌리를 내린 사회로 가기 위한 '장구한 혁명'을[26] 재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KOREA MARITIME UNIVERSITY 1945 한국해양대학교

25) 이러한 개념 전환의 요구를 최원식, 「문학의 귀환」, 『문학의 귀환』(창작과비평사, 200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6)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문화나 문학은 공동체를 향한 장구한 혁명의 과정에 있다. 그처럼 우리도 문학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를 맞은 것 같다. R. Williams, *The Long Revolution*(Penguin, 1975), p. 328.

dCollection

Collection